

<2022-2학기 요크 세인트 존 대학교 교환학생 체험 후기>

교육학과 이일주

장장 5개월의 시간동안 타지에서 교환학생 기간을 거쳤다는 것이 한국에 온 지금에서야 실감이 난다. 진부한 말이지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을 영국에서 보내며 값진 경험들을 쌓았다. 아무래도 표면적인 경험이 주가 되는 여행에 그치지 않고, 강의를 듣고 과제를 하며 영국 대학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어 특별했다. 과제를 위해 에세이를 쓰고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일 자체도 익숙하지 않은데다 이를 모두 영어로 해야 하는 부담감에 헤매기도 했지만, 수업에 참여하기 위한 노력이 학문적인 영어실력을 기르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느낀다.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수업의 형태가 인상적이었는데, 세미나나 에세이처럼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해나가게끔 하는 학습자 중심의 과업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진정한 성장을 이끌어낸다는 느낌을 받았다.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질문하고 교수자의 활발한 피드백이 이뤄지는 유연한 수업 분위기에서 수업할 수 있었던 점도 좋았다. 개인적으로 개별적인 피드백을 받아본 기억이 많이 없는데, 요크 세인트 존 대학교에서는 평가에 포함되지 않는 형성평가뿐만 아니라 평가에 포함되는 총괄평가에서도 에세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피드백이란 부정적인 지적이라기보다 발전을 위한 디딤돌임을 다시금 느꼈다.

교환학생이 특별한 기회인 또 다른 이유는 외국 학교에서 수학 기회를 얻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데에서 올 것이다. 서로 다른 사회 문화적 배경과 경험, 꿈을 가진 이들과 교류하며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삶의 방식들을 엿본 것, 또한 문화적 차이 속에서도 진심이 통하는 친밀한 관계를 쌓은 것은 소중한 경험이다. 비록 개인의 한정적 경험을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영국사회와 영국인들을 관찰할 수 있었던 것도 시야를 넓히는 데에 기여했다. 영국인들은 대체로 친절했고, 영국사회는 장애인이나 성소수자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높았으며 개개인의 개성이 오롯이 인정되는 분위기가 인상적이었다. 물론 꽤나 엄격한 계급사회인 영국을 마냥 유토피아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다양성에 대한 포용도는 우리 사회가 배울 점이라고 느꼈다.

더불어 교환학생 기간은 나 자신의 부족함과 강점을 확인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다. 언어의 장벽과 마주할 때마다 언어란 인간의 창의적인 사고를 토대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복잡한 체계인 만큼 이를 통달하기 위해 꾸준한 노

력이 요구된다는 걸 몸소 느꼈다. 이는 영어 공부에 대한 의지를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새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며 내게 새로운 사람들과의 대화의 물꼬를 트고 편안하게 의사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걸 느끼기도 했다. 이는 어떤 방식으로든 개인을 성장시키는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았다면 알지 못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교환학생으로서의 경험은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서 수학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과 교류하며 시야를 넓히는 기회였다. 또한 배움이 외국에 있는 시간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넓혀진 시야를 통해 앞으로의 삶에도 지속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느낀다. 교환학생에서 느낀 부족한 역량은 성실한 공부를 통해 보완하는 한편 나 자신이 가진 강점은 살리면서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스스로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